



## 로페즈 잠실대첩 부탁해

오늘 KS 5차전... 카도쿠라와 리턴매치  
 KIA 타선 응집력 살려 V10 달성 자신



‘용호상박’의 한국시리즈, 잠실벌을 달군다.  
 2승2패로 원점으로 돌아간 KIA 타 이거즈와 SK 와이번스의 2009 한국 시리즈가 22일 잠실구장에서 세 번째 라운드를 시작한다. 각각의 홈구장에서 2라운드 대결을 펼친 양팀은 승자를 가리지 못하고 잠실까지 승부를 끌고 왔다. 남은 2승을 놓고 출발선으로 돌아온 양팀은 1차전과 마찬가지로 로페즈와 카도쿠라 두 용병을 마운드에 내세웠다.  
 앞선 대결은 로페즈의 승리였다. 지난 16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렸던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KIA 로페즈는 8이닝동안 3실점으로 SK 타선을 막아내 승리를 품에 안았다. 로페즈는 3-2로 앞선 8회 원아웃 상황에서 정상호에게 등

점 솔로 홈런을 허용했지만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하며 팀 승리의 기쁨을 다졌다. 이후 8회말 공격에서 이종범의 결승타로 승부가 뒤집히면서 로페즈는 승리투수가 됐다.  
 5이닝 1실점을 기록한 카도쿠라의 호투는 팀의 패배로 빛이 바랬다. 1차전에서 카도쿠라는 하나의 피안타로 1점을 내주며 KIA 타선을 막아냈다. 삼진도 7개를 뽑았으나 5이닝을 던지고 마운드를 내려가면서 로페즈와의 대결에서 관정패를 당했다.  
 두 용병투수가 귀중한 1승을 놓고 재격돌한다.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간 만큼 5차전은 남은 경기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승부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번 한국시리즈 키 포인트는 ‘선발’이다. 그만큼 두 투수의 어깨가 무겁다.  
 KIA는 불펜 층이 SK에 비해 얇고, SK 불펜은 상대적으로 피로도가 높다. 선발의 기선싸움이 양팀에게는 승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재대가 된다.  
 앞선 4번의 대결 역시 선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 팀이 승리를 가져갔다. KIA는 1-2차전 8이닝과 7이닝을 막아준 로페즈와 윤석민의 힘으로 2연승을 달렸다. 3차전에서는 구토슨이 너무 쉽게 무너지면서 경기 초반부터 경기의 흐름이 SK에게로 넘어갔다. 4차전에서는 양팀 선발이 똑같이 5와 3분의 2이닝을 소화했지만 ‘패기’의 양현종이 3실점을 하며 1점으로 KIA 타선을 묶은 채병용의 ‘노련함’에 밀렸다.  
 분위기는 2연승으로 기세가 오른 SK에 유리하다. KIA는 타선의 응집력 부재와 상대의 호수비에 발목이 잡히면서 쫓기는 입장이 됐다.  
 잠실에서 다시 만나는 KIA와 SK, 어느 팀이 먼저 상대 선발을 끌어내리느냐에 따라서 5차전의 승부는 물론 최후의 승자까지도 결정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S 첫 신고 정용운 “미트밖에 안보였어요”

### ■ 한국시리즈 말... 말... 말

대접을 하겠다며.

서 정신없다면서.



“박정권 삼진 잡은 후 사람들 보았다.” = 19일 구원등장했던 신인 투수 정용운. 너무 긴장해서 포수 미트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며, SK 박정권을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에야 사람들이 보였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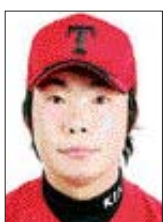
“사고치는 줄 알았어요.” = 19일 경기전 선발 투수 구토슨의 불을 받았던 불펜 포수 조현. 구토슨의 컨디션과 구위가 너무 좋아서 기대를 했는데 긴장을 많이 한 것 같다면서.



“매직으로 다 칠해버렸습니다.” = 한국시리즈 직전 새로 주문한 방망이를 받은 포수 김상훈. 방망이에 SK 와이번스의 김상훈이라고 잘못 적혀 나와서 팀 명을 매직으로 지워버렸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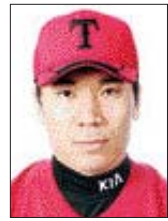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 친정인 KIA 덕아웃에 인사를 하러 온 SK 투수 전병두. 어깨 부상으로 재활중인 전병두, 몸 상태를 묻는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대답할 때마다 “괜찮은데 한국시리즈 왜 안나오냐고?”는 질문이 돌아오자.



“300만원 풀겠습니다.” = 20일 경기에 앞서 덕아웃에서 짐을 챙기던 나지완. 이날 경기 MVP가 되면 상금 300만원으로 취재진들을



“인사만 50번은 했어요.” = 팬들과 언론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1투수 최희섭. 한국시리즈의 뜨거운 취재 열기 때문에 덕아웃에 취재진들이 너무 많아



“그 질문 내가 다 부끄럽네.” = 12년 만에 한국시리즈 마운드에 다시 선 이대진. 오랜만의 등판이 떨리지 않았다는 질문에 ‘나이’가 몇인데 떨리냐면서.



“예전에는 처처 곤란이었는데.” = 김중모 수석코치. 한국시리즈에 대비해 지급된 방한용 패딩점퍼를 보고, 80~90년대에는 가을잔치 단골 팀이라 해마다 방한용 점퍼를 받았으면서.

## 김상훈 MVP·안치홍 신인왕 후보에

### 프로야구 정규시즌

올 시즌 프로야구 최우수선수(MVP) 후보로 김상훈(KIA), 김광현(SK), 김현수(두산), 박용택(LG)이 선정됐다.

최우수신인선수 후보는 안치홍(KIA), 고창성, 이용환, 홍삼삼(이상 두산), 김민성(롯데) 등 5명이다.

한국야구위원회와 한국야구기자회는 지난 19일 2009 CJ마구마구 프로야구 MVP 및 최우수신인 후보자 선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렇게 후보를 정했다고 밝혔다.

MVP와 신인왕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잠실 롯데월드호텔에서 프로야구 출입 기자단 투표로 뽑는다.

총 유효표의 과반을 득표한 선수가 수상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결선 투표를 진행해 최다득표자를 가린다.

가장 유력한 MVP 후보로 꼽히는 김상훈



〈김상훈〉

〈안치홍〉

은 홈런(36), 타점(127), 장타율(0.632) 1위에 올랐고 김현수는 최다안타(172) 1위를 비롯해 타점 2위, 타격, 득점, 출루율, 장타율 3위 등 도루를 뺀 타격 전 부문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신인상 후보 중 타자 쪽은 14홈런을 때린 안치홍과 114경기에서 타율 0.248을 기록한 김민성이 명함을 내밀었다.

/연합뉴스



양용운이 21일(한국시간) 버뮤다 사우샘프턴에서 열린 PGA 그랜드슬램 골프대회 첫날 2번 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양용운 ‘PGA 올해의 선수’ 거론

‘호랑이 사냥꾼’ 양용운(37·테일러메이 드)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올해의 선수 후보 가운데 한 명이라고 AP통신이 21일(한국시간) 보도했다.

AP통신은 이날 “선수들의 투표로 정해지는 PGA 투어 올해의 선수 후보로 타이거 우즈와 올해 투어에서 3승씩 거둔 스티브 스트리커, 필 미켈슨(이상 미국)이 거론되고 있으며 PGA 챔피언십과 혼다클래식에서 우승한 양용운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양용운이 올해 메이저대회 우승자 가운데 2승 이상을 거둔 유일한 선수”라고도 덧붙였다.

선수들의 투표로 정해지는 PGA 투어 올해의 선수에게는 ‘잭 니클라우스 트로피’가 주어진다. 지금까지 그 해에 메이저 우승이 없는 선수가 올해의 선수에 선정된 것은 1990년 웨인 레비(미국), 1995년 그렉 노먼(호주), 2003년 우즈 등 세 번뿐이었다.

AP통신은 또 시즌 성적에 따른 점수로 정해지는 미국프로골프협회(PGA of America)의 올해의 선수로는 우즈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우즈는 시즌 6승으로 60점, 상금 1위로 20점, 최저타수 부문 1위로 20점 등으로 점수를 쌓았다. 1997년 이상을 처음 받은 우즈는 이후 1998년 마크 오메라(미국), 2004년 비제이 싱(피지), 지난해 파드리크 해링턴(아일랜드) 등 세 차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 상을 독차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양용운 PGA 그랜드슬램 첫날 부진

양용운(37·테일러메이 드)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이저대회 우승자들만 모여 치르는 PGA 그랜드슬램 골프대회 첫날 최하위인 4위에 머물렀다.

양용운은 21일(한국시간) 버뮤다 사우샘프턴의 포트 로열 골프장(파71·6천824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4개를 잡았으나 보기 2개와 더블보기 1개로 타수를 잃어 이븐파 71타를 기록했다. 단독 1위

로 나선 올해 US오픈 챔피언 루카스 클로버(미국)와는 6타 차이다. 2.3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으며 상대적으로 출발한 양용운은 4번 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버퍼로 보내며 더블보기에 그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이날 그린 적중률이 55%에 그친 양용운은 “최선을 다했지만 언더파 점수를 내지 못했다. 내일은 좀 더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